

광주시, 전력망 미래기술 실증 거점 도약한다

산업부 에너지기술개발 공모 선정 국비 525억 확보...4년간 사업 추진 전기연구원 AC/DC배전망 구축 전력신기술 상용화·산업화 기대

광주광역시 미래기술의 실증 거점으로 도약한다.

7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 공모사업'인 '차세대 AC/DC 하이브리드 배전네트워크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AC(Alternating Current)는 '교류'의 이니셜로, 시간에 따라 그 크기와 극성(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를, DC(Direct Current)는 '직류'의 이니셜로, 시간에 따라 흐르는 극성(방향)이 변하지 않는 전류를 뜻한다.

이 사업은 광주시에 위치한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본부에 차세대 배전망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조성하고, 인근 나주지역에 실제 배전망을 활용해 신뢰성 실증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다.

총 사업비는 690억원(국비 525억원, 시비 40억원, 민자) 규모로, 올해부터 4

년간 투입된다. 이는 광주시 에너지산업 육성 정책의 핵심과제가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25억원을 확보한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이다.

테스트베드 구축에는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본부를 비롯해 한국전력, 한전KDN,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10개 기관·대학이 참여한다. 테스트베드는 산업부가 2022년부터 개발했던 차세대 배전망 기기 및 운영기술 등 10개 과제의 기술성과를 실제 전력망과 유사한 환경에서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한국전기연구원 부지에 지중 및 가공을 혼합한 AC/DC 배전망을 구축하고 △배전기기 △운영기술 △통합관제시스템 등을 설치해 전력 신기술·기기의 계속·진단·평가를 실시한다.

나주에는 기존 AC배전망을 DC배전망으로 전환해 현장 운영기술과 신뢰성 검증이 이뤄지며, 사업 종료 후에는 광주와 나주 모두 상시 운영 체계를 마련해 실증 인프라로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번 테스트베드 사업을 기반으로 광주를 국가 배전기술 실증 및 상용화 중심지로 육성하고, 실증 인프라를 발

전시켜 시험·인증 기능까지 아우르는 거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력망의 핵심 기술을 검증하고 신뢰성 평가를 통해 지역 내 전력계통망을 강화해 계절별 수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전력 인프라 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 사업은 광주가 에너지산업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기"라며 "지역 전력산업과 연계한 시너지 창출을 통해 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산업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투표 독려 현수막 제21대 대통령 선거(6월 3일)를 앞둔 7일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 외벽에 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양배 기자**

광주시, 아동학대 예방 '다국어 리플릿' 제작

영어·베트남어 등 8개국 언어

광주광역시는 아동학대 예방과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다국어 부모 교육 리플릿'을 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문화 차이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 8개국 언어(한국어·영어·베트남어·중국어·필리핀어·캄보디아어·러시아어·몽골어)로 3만5000부 제작했다.

이 리플릿은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이 기획한 '충분히 좋은 우리-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사업'의 하나로 제작됐다. 제작된 자료는 광주지역 5개 자치구, 가족센터, 학교, 유관기관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리플릿에는 아동학대의 개념과 주요 유형, 실제 신고되는 학대 사례와 함께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와 긍정적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 등이 담겨 있다. 특히 문화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갈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부모와 자녀 간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정보도 포함했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 가족센터 종사자, 통역사와 협력해 다문화 부모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부모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다양한 문화권의 부모가 이번에 제작한 다국어 부모 교육 자료를 통해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아동이 존중받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전남도, 전국 첫 정원관광 '남도정원 산책' 운영

국립정원문화원과 1년여 답사 남도 멋·풍류 등 19개 상품 선정

전라남도가 5월 전남 방문의 달을 맞아 남도의 멋과 풍류를 담은 다양한 정원을 여행하는 '남도정원 산책' 코스를 선보인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 남도 정원에 대한 관심과 명성으로 정원관광 시대를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열어가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다.

남도정원 산책 활성화를 위해 전남 관광플랫폼에선 지방정원, 민간정원, 전통정원 등 도내 정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원 투어 코스를 안내한다. 또 여행하고 싶은 테마별 정원코스를 선택하면 정원의 특징과 주변 정원들과 연계해 여행할 코스를 안내하는 등 맞춤형 정보도 제공한다.

다.

총 19개 코스로, 전남도와 올 가을 개원하는 전국 최초 정원기관인 국립정원문화원이 1년 여 동안의 답사 등을 통해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전통정원, 캠핑 등 테마 코스 5개, 담양과 구례, 해남 등 정원이 집중된 시·군별 지역코스 13개, 남도의 주요 정원을 한 바퀴 둘러보는 4박5일 장기코스 1개다.

국립정원문화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남도의 전통정원을 널리 알리고 미래 세대 가드너 양성을 위해 '남도정원, 숨과 풍경을 잇다'라는 주제로 대학생 위주 정원투어를 추진한다.

국내·외 체인망을 갖고 정원투어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월간 가드닝에서는 담양권 1박2일, 해남권 1박2일, 고흥권 1박2일 등 남도정원 투어프로그램

을 운영할 계획이며, 8일부터 월간 가드닝 누리집(www.gardentou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에는 국가정원 1개소, 지방정원 2개소, 민간정원 30개소, 전통정원 3개소가 있으며, 국립정원문화원과 더불어 정원의 본고장으로 정원여행을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박종필 전남도환경산림국장은 "정원문화가 오랜 기간에 걸쳐 자리 잡은 유럽에서는 정원 관광이 활성화돼 있다"며 "나만의 힐링을 위한 여행을 꿈꾸신다면 신록이 가득한 5월 남도정원 여행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수 민간정원을 발굴·등록하고, 이를 브랜드화해 정원관광 산업화를 통해 전남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수급안정 지원

정부·국회에 지속 건의 결실 농가 경영비 부담경감 기대

전라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2025년에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농가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를 구입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협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할인해 판매하고, 정부·지자체·농협이 사후 분담해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회를 17차례에 걸쳐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국고 건의활동을 진행했으며 이에 정부 추경에 국비 255억 원(전국)을 반영하는 데 성공했다.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해서 국고 건의활동을 펼친 결과 정부 추경에 국비 255억 원(전국)이 반영됐다.

전남도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국도비를 사전 편성했으며, 농식품부에서 무기질비료 예산 통보 즉시 추진

할 예정이다. 전남도 총사업비는 183억 원(국비 확보기준 예상액) 수준으로 농가 영농비 및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현식 전남도농축산식품국장은 "농산물 생산비는 오르고 무기질비료 가격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농가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은 필요하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도록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을 찾습니다"

업력 15년·상시 고용 10명 이상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 한도 상향

전라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 향토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2025년 전라남도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을 오는 21일까지 3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랑스러운 향토기업 인증 제도는 '전라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역에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해온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2024년부터 시작해 2028년까지 총 50개 향토기업을 인증하는 것을 목표로 매

년 10개 사 내외의 우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존에는 업력 20년 이상,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이어야 가능했으나 업력 15년 이상,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기업도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평가는 업력·매출 성장률 등 경제적 기여와 사회 공헌·직원 복지 등 사회적 기여, 2개 분야 8개 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고득점 순으로 총 10개 기업이 선정된다.

향토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며 △중소기업 시설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융자 한도 상향(시설

자금 18억 원·경영안정자금 5억 원), 이자 지원 우대(최대 2.9%)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흡소핀 및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지원 △전남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 신청 시 가점 부여 △전남도 주관 행사 우선 참여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참여를 바라는 기업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2025년 전라남도 자랑스러운 향토기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중소기업과 (061-286-375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지현 기자**